

나비효과?

-2004년 대선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노선의 미래

안병진

들어가며

최근 '화씨 9/11'이라는 반전 영화를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 감독과 테러리스트 빈 라덴, 이 둘 중 누가 더 뛰어난 영화감독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소비자들의 무의식 구조에 대한 이해력에 있어서는 단연 빈 라덴 '감독'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그를 '감독'이라고 부른 이유는 대선 투표 직전 그가 하나의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 주듯이 알 자지라 방송에서 미국인들에게 9·11 테러의 공포를 효과적으로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 기간 내내 부시 진영의 노획한 선거참모인 칼 로브가 추구했던 공포 환기 전략과 우연히도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빈 라덴은 자신이 증오시하는 세력이 권좌를 유지할 때만이 자신의 극단주의가 변성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빈 라덴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은 부시로 대표되는 강경 보수주의라기보다는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으로 대변되는 리버럴들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리버럴들의 상대적으로 온건한 전략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고통스럽게 제거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 라덴과 칼 로브의 의도한 효과와 달리, 반대로 무어 감독은 비

록 영화 수익은 올렸지만 반전 메시지라는 소기의 목적보다는 테러의 외상을 환기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역할을 한 셈이다.

현재 미국의 많은 시민들은 비유하자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커다란 천재지변이나 끔찍한 사건 이후 그 사건의 기억 때문에 고통을 겪는 증세를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시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증거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의 잔혹한 고문이 만천하에 폭로되며 이라크에서의 사상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에서도 2000년 선거보다 지지율을 올리고 상하원을 석권한 현상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이를 자신이 추구해 온 아젠다에 대한 민의의 '위임mandate'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미국 대통령들의 의식구조에서 단임과 연임은 엄청난 의미의 차이를 지닌다. 오직 연임 대통령만이 역사의 장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선 직후 부시 대통령은 선거의 결과에 고무되어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면, 세계평화를 위해선 그렇게 말한 대로 되는 게 낫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부시 대통령이 지구경찰로서의 미국의 특별한 소명에 대해 얼마나 심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다른 한편으로 집권 2기에 대한 그의 자신감을 드러내 준다.

하지만 재선의 기쁨에 취해 있는 부시 대통령이 한 가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¹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의 집권 2기는 위대한 대통령으로의 초대장이기보다는 1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중임제가 정치개혁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

1 이하의 내용은 본인의 줄고인 《주간동아》 2004년 11월 18일자 특집 「부시 재선 이후」를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토록 성공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레이건 대통령조차 집권 2기는 이란 콘트라 스캔들 등 오욕의 역사였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법적 장애가 없다면 3선까지 가기를 원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집권 2기 내 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의 굴욕 속에서 거의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임기를 끝내야만 했다.

이 글은 이렇듯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집권 2기를 맞이한 부시 대통령의 외교안보노선의 미래에 대해 일반적 수위에서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의 특질과, 이들의 정책 경향을 가로막는 외적 장애가 어떻게 이들의 집권 2기 노선 수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전통적 현실주의로 복귀?

대선 이후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 1기의 이상주의에서 전통적 현실주의로 복귀할 것이라며 집권 2기를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도미니크 모이시는 부시 2기가 “아버지 부시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채택했던 정책과 유사”한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 모이시가 말하는 아버지 부시의 전통적 현실주의 노선이란 거창한 이데올로기적 목표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개입주의 노선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공화당의 지배적인 대외안보노선이 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외 지식인들의 이러한 단정은 부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책 성향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무의식중에 일국의 외교안보노선을 정책 결정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협소한 시야 속에서만 보려는 서구적 외교 이론가들의 뿌리 깊

2 도미니크 모이시, 「부시 2기, 실용외교로 갈 것」, 《중앙일보》, 2004. 11. 25.

은 사고의 습관과 결부되어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인간이 언제나 모든 의사결정에서 편익과 비용을 저울질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국가 자체나 혹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집권 1기에서 부시 대통령은 거친 일방주의 노선의 대가로 국제적 지지 상실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케리 후보의 선거기간 중 비판이 거셌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합리적 동기만큼이나 중요한 집권 엘리트의 이데올로기, 믿음 혹은 뿌리 깊은 편견 등의 강력한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과 달리 국가의 최고 엘리트 또한 일반 시민들처럼 자신들의 편견과 두려움, 욕망에 의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왔다. 미국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은 이러한 무수한 예로 점철되어 있다. 예를 들어 3차 대전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의 케네디와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서로의 동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투명한 시선을 갖지 못하고 상대의 행위를 무수히 오인한 예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서 있던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미국 엘리트들은 이 사건에서 충분한 교환을 얻지 못하고 도미노 이론이라는 가공의 공포를 자신들의 심리구조 속에 창출하여 무익하게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그 이후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베트남 콤플렉스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의 극단적 행동에 의해 자극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악마적 이미지를 통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현 부시 행정부가 몇 번이나 실용적 타결을 주도할 수 있는 시점을 실기해 온 것을 보아 왔다. 사실 1994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악마화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클린턴 행정부는, 그 이후 정치적 경험 속에서 깨달으며 일괄타결이라는 보다 실용적 태도로 전환한 바 있다.

사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 주류 외교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쿠바, 베트남, 북한 등 미국의 패권 구도에서 이탈하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는 이들을 악마화하고 강압적 힘을 통해 복종을 유도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뛰어난 외교전문가인 리언 시겔은 이를 '범죄와 처벌crime-and-punishment' 식 접근이라고 명명하고 있다.³ 이러한 '범죄와 처벌' 식 접근은 항상 미국의 제3세계와의 관계에서 강한 긴장과 역풍을 불러 일으켜 왔다. 더욱 주목할 것은 부시 행정부 내 소위 네오콘 및 이들의 배후 핵심인 딕 체니 부통령, 그리고 전통적 보수주의자인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극단적인 숭상이다. 이들의 힘에 대한 뿌리 깊은 숭상은 향후 부시 집권 2기에서도 제3세계 국가들과의 강한 갈등과 반작용을 예견하게 한다. 이들 네오콘들의 스승인 레오 스트라우스는 일찍이 비서구 독재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방의 압도적 군사력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후 저명한 네오콘인 노만 포도레츠Norman Podhoretz는 미국이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9·11 테러는 미국의 힘에 대한 경멸의 산물이며, 미국이 오랫동안 테러리스트에 대해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호전적인 이슬람에게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라고 강조하였다.⁴ 이라크 침공은 과거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의 힘과 의지에 도전했던 후세인에 대한 응징이자 미국의 힘과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시연장이었다.

이들의 힘에 대한 극단적 숭상은 중동 민주화에 대한 혁명적 목표와 결합되어 집권 1기 내내 부시 행정부를 휘감은 바 있다. 흔히 현실주의자들은

3 Sigal, Leon V.,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4 안병진,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와 정치적 함의: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4, 139쪽.

“지배층은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⁵ 사실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흔히 언론 지상이나 마이클 무어의 영화상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주요 동기로 이라크가 미국의 석유 공급의 주요한 요충지대라는 점과 부시 행정부 인사들과 석유자본들과의 연계성을 지적해 왔다.⁶ 사실 현재 미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석유 소비량이 많은 SUV 차량의 보유량이 세계 최고라는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저렴한 석유자원 공급에 사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쟁의 주요 동기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 난점이 있다.⁷ 비록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정도로 기존의 석유공급 체계에 심각한 위기가 있어 온 것은 아니다. 또한 디 체니 부통령을 비롯하여 부시 행정부의 참여 인사들의 배경이 석유자본과 인맥에 있어 친화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들이 개별 석유자본들에 포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이들이 장기적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나 경제불황의 돌파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사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엄청난 위험요소와 비용이 예상되는 이라크 침공을 석유 때문에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백승욱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비록 이라크를 점령함으로써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수

5 이매뉴얼 월러스틴, 『미국 패권의 몰락: 혼돈의 세계와 미국』, 창비, 2004, 173쪽.

6 예를 들어 이장훈 씨는 『네오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에서 부시 행정부와 석유자본과의 인적인 연계망을 나열하며 “이처럼 석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시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이 의도적으로 석유를 외면하는 측면에는(석유자본과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석유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훈, 미래M&B, 2003, 171쪽 참조.

7 이하의 내용은 본인의 줄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논리』(《한국정치연구》 제 12집 2호, 서울대 출판부, 2003) 180쪽에 기반을 두었음을 밝힌다.

업의 증대보다는 소수 미국인 자본가들의 수중에 부가 집중됨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⁸

오히려 이러한 경제주의적인 해석보다는 신보수주의 진영의 힘에 대한 믿음과 이에 근거한 세계 재편의 구상이 부시 행정부 내에서 관철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사실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은 경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는 정반대로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경제적 요인보다 신념이나 비전을 특별히 중시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1997년 이들이 결성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PNAC: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등이 고민해 온 세계 재편의 비전은 석유라는 협소한 목표로 이해되기에는 보다 원대하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라크 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라크에의 침공을 매개로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여 미국의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을 위협하고 중동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유일 무이한 세계질서의 패권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보인다. 이라크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약한 고리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라크 침공의 알리바이로 등장했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때문에 침공하였다기보다는, 반대로 이의 부재와 이라크의 약함이 이들로 하여금 쉽게 침공의 유혹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석유는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세계체제의 재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전리품의 성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이들의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가 극적인 외적 조건의 변화없이 집권 2기에서 쉽사리 변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인다. 오히려 이들은 마치 러시아의 혁명가인

8 백승욱, 「신보수파 주도하의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겨울호, 한울, 2003, 14쪽.

9 신보수주의의 핵심 특질로 이러한 문화적 결정론으로 보고 있는 저서로는 Mark Gerson, *The Neoconservative Vision: From the cold war to the culture wars*(New York: Madison Books, 1997)를 참조.

레닌이 세계 자본주의 전선의 약한 고리인 러시아의 적화를 매개로 세계의 체제 변환을 영구적으로 기도하였듯이, 이라크 점령을 매개로 세계의 영구적 재편을 부단히 시도하리라 예상된다.

물론 이들이 집권 2기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부시 현 대통령의 행보가 결정적이다. 사실 부시 집권 1기에서 네오콘 동맹이 그토록 용이하게 형성되고 콜린 파월 등 현실주의자들이 퇴조한 것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대통령인 부시의 적극적인 승인이었다. 우드워드와 회고록이 밝히고 있듯이 애초에 그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72일 만에 럽스펠드 장관으로 하여금 이라크 전쟁계획을 준비하게끔 지시하였고, 이후 울포위츠나 체니 등의 이라크 전쟁결정 촉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바 있다.¹⁰ 비록 그 자신은 네오콘보다는 훨씬 실용주의적 성향을 가지지만 남부 텍사스의 보수주의적인 지역에서 형성된 백인 중심주의적인 국수주의, 군국주의와 일방주의는 네오콘의 세계관과 매우 강한 친화성을 지닌다.¹¹ 그는 같은 남부 출신인 린든 존슨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월슨주의적 국제주의보다는 국수주의적인 잭슨주의 전통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강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고려할 때 집권 2기에서 그가 혁명적으로 궤도 수정을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그의 뿌리 깊은 확신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 바 있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 자유사회를 건설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런 비판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최선의 방안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9·11 테러라는 엄청난 충격 이후 국토의 안보와 세계의 혁명적 재편이 동일이이며, 강한 군사주

¹⁰ Mark Gerson, Ibid., p. 17.

¹¹ 이에 대해서는 마이클 린드의 탁월한 분석인 『부시 메이드인 텍사스』(동아일보사, 2003)를 참조할 것.

의적 공격만이 최선의 국토 방어라는 뼈저린 자각 속에서 나온 확신이다.

레이건 모델이 불가능한 이유

하지만 부시 2기의 급격한 온건화를 전망하는 인사들은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극적인 선화를 예로 들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극적인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비교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사상시킨 것이다. 흔히 역사학에서는 과거 사건과의 비교나 비유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함을 지적해 왔는데 레이건과의 비유는 구체적 맥락에서 적절치 못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첫째로는 정치적 경험의 차이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흔히 손쉬운 승리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1984년 재선 초반 냉전을 주도한 호전적 이미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 선거의 칼 로브와 같은 리처드 워들린이라는 탁월한 선거전략가의 주도로 평화의 사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한 바 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평화와 협상을 중시하고 소련 수상과 회담하는 이벤트를 연출하는 등 매우 일관되게 평화주의적 선거전략을 구사하였다. 평화의 사도라는 이미지로 부동층을 공략하여 선거에서 재미를 본 실용주의자 레이건은 이러한 정치적 경험에 고무되면서 이후 보다 온건한 노선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현재의 네오콘들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지만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들은 행정부의 핵심으로 거의 발탁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 부시 진영에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 진영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은 사실상 립 서비스 이상의 정책적 배려를 전개하지 않아 강경 보수파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강조한 것은 평화라기보다는 힘에 기초한 선제공격 독트린의 정당성이었다. 그는 과거 1984년 레이건 대통령 진영이 방영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꿈’이라고 하는 정치 광고를 벤치마킹

한 '늑대' 라는 광고를 통해 평화 공세가 아니라 강한 힘만이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사주의적 노선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했고 이를 자신의 아젠다에 대한 민의의 위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건 시절과 상당히 다르다. 또한 집권 2기 내각의 개편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노선의 충성파인 라이스를 국무장관으로 중용하고 딕 체니 부통령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시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네오콘이 요직을 차지하는 정부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막강한 동원력을 보여 주며 큰 영향력을 발휘한 기독교 근본주의 진영은, 과거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어 이들 근본주의자들에게 크게 빛진 것이 없었던 레이건과 달리, 부시의 대외 노선 변경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집권 1기 동안 북한인권법 등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둘째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행정부가 상대하고 있는 적의 특성의 차이이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극적 선회는 사실상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강력한 평화 공세에 의해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는 특성을 지닌다. 고르바초프는 과거 위기를 어느 정도 지속화시키며 자신의 대내 정당성을 다지고 미국과 공존하고자 했던 지도자들과 달리, 매우 강력한 평화 추구를 선도하며 부단히 레이건 대통령을 수세로 몰아넣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의 적은 실용주의자이며 평화론자인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미국의 신경 발작을 이끌어 내는 극단적 테러리스트들이다.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위기인 소련과 달리 현재의 테러리스트들은 불확실하고 바로 그러하기에 더욱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이는 레이건보다 훨씬 더 근본주의적인 부시 대통령의 스타일과 맞물려 집권 2기에도 부단한 긴장과 부시 행정부의 강경 보수주의를 유발할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시와 알 카에다는 과거 냉전 시절의 미소 관계보다 더 상호적대적이면서도 또 더욱 상호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2기의 구조적 제약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세계의 혁명적 재편에 대한 야망에도 불구하고 그가 2기에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는 생각보다 많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을 쏟아 낼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현 외교안보노선의 후폭풍이다. 현재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노선의 결과 유럽 등의 동맹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훼손되었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통제력은 전후 최악의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현재 바라는 것은 유럽이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여 미국의 쉬운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갈수록 밀접해지는 것이 시사하듯이 오히려 유럽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반미적으로 변하며 더욱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¹² 그리고 이슬람 지역으로부터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은 현재 미국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부시의 강압적 기조의 정책은 오히려 의도와 달리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전 세계적으로 양산하고 있고, 이는 좌파뿐 아니라 보수주의 내부에서도 심각한 회의론을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 윌이라는 대표적 보수주의 논객은 “도대체 누가 3년 전보다 테러리스트들이 적어졌다고 믿겠는가?” 라고 묻고 있다.¹³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강압전략은 북한, 이란, 심지어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 미국의 의도와 달리 더 강한 반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실 북한이 이라크 전쟁에서 배운 교훈은 일방적 무장해제는 이후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정신이 없을 때, 이후의 협상입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핵심과제인 이라크 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강경한 레토릭을 뒷받침하는 공세적 태도

12 Boswell, Terry, “American World Empire or Declining Hegemony”,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x,2, Summer 2004, p. 523.

13 Meyer, Karl, “The Perfect Debacle”, *World Policy Journal*, 2004.10.7, p. 101.

를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미국의 이중 봉쇄정책의 결과 이라크와 함께 봉쇄해 온 이란도 미국이 이라크에 매달려 있는 틈새를 노려 핵 재처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 맹주로 떠오르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이슬람 민주화 정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냉전 시절부터 지켜 온 자신의 통제와 지배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선제공격 doktrin을 천명하고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강화하며 과거 클린턴 시절의 밀월과 달리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까지 감수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의도한 것과 달리 이라크가 약한 고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제국의 쇠퇴를 가져올 강한 고리임을 보여 주는 현상들인 셈이다.

둘째로는 이라크전에서의 딜레마이다. 미국은 현재 점진적 철수와 군 증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손을 떼게 되면 이후 이라크는 손쉽게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반면에 군을 증강하게 되면 정권 이양 이후에도 미국의 존재로 인해 반미의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는 <국민협약> 등 17개 단체를 비롯하여, 예정된 총선의 연기마저 주장하는 세력이 갈수록 힘을 얻을 정도로 혼미 상태에 돌입해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는 아직까지 이라크 분파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부르킹스의 케네스 폴락이 지적하듯이 선거에서의 부분적 참여는 선거의 정당성을 심하게 훼손하며 “잠재적으로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다.¹⁴ 이미 이라크의 온건 진영을 구성하는 기독교 진영들이 대규모로 이라크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8월 이래로 3만의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났다고 한다. 이는 이후 극단주의 세력들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14 “Event Summary: The Prospects for Peace, Reconstruction, and the January Elections”,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4.10.18, <http://www.brookings.org>

을 만들어 준다. 이는 네오콘들이 예상했던 안정되고 세속적인 정권 대신에 극단주의적이고 신정에 기초하며 악의 축인 이웃 이란과 연계된 세력의 등장까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¹⁵ 더구나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종족 별로 국가의 산산조각까지 예언하는 이가 나올 정도로 비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미군의 계속되는 증강 요구는 국내적으로 징집에 대한 불가피한 검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베트남전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는 징집은 이후 부시 행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라크전을 어떻게 연착륙으로 마무리 짓는가에 부시 행정부 미래의 반이 결려 있다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니다.

셋째는 심각한 재정 적자의 압박이다. 이미 선거기간 의회 예산국은 늘어나는 전비와 영구적 감세조치로 인한 재정적자의 심각성에 대해 중대한 경고를 한 바 있다. 사실 군사적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위는 불안전하다. 과거 걸프전은 일본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치를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 전쟁은 언제 끝날지조차 막연하며 부단히 미국의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다. 사실 미국은 대외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채권을 팔아 돈을 빌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동아시아 정부들이 미국 재무부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안한 현실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월러스틴의 지적처럼 만약 달러화가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도 가치가 하락하는 채권에 불합리한 투자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¹⁶ 이러한 위기는 공화당 내 재정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보수주의 세력과 비지니스 세력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비록 지금까지 경제계는 소로스 같은 일부 개별 자본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및 작은 정부론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와 큰 마찰을 겪어 오지는 않

¹⁵ Meyer, *op. cit.*, p. 102.

¹⁶ 월러스틴, 앞의 책, 400쪽.

았다. 하지만 갈수록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노선에 의한 세계경제의 항구적 불안은 금융계처럼 국제주의적 지향성을 가지는 경제계 주류와의 갈등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들은 집권 2기의 혁명적 목표들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혁명적 목표들은 그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 등으로 후폭풍이 매우 극심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 경험을 통해 미국 국내 여론이 강력하게 반전으로 돌아선다면 부시 행정부는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 사건이나 스캔들로 과거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고생한 레이건 시절보다 더 심하게 조기에 레임덕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 만약 국내 여론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우선 네오콘 같은 이상주의와 럽스펠드 등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긴장과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럽스펠드 같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의 최대 욕망은 중동 민주화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혁명의 완수보다는 영구적인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이를 핑계로 한 미사일 요격체제 구축 등에 평생을 매달려 왔다. 그리고 네오콘보다 더 실용주의적인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때 덜 이상주의적인 럽스펠드의 입장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시의 정무장관인 칼 로브는 국내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네오콘과의 현재의 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는 부시의 지지율과 공화당의 다수 동맹의 존재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 보수주의 정책이 혼돈에 빠지고 추진에 너지를 잃어 버린 상황이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작용 속에서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부시 행정부가 전통적 현실주의로 180도 선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적 제약에 의해 강제되어 스타일에 있어 보다 온건한 제스처를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군사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기초를 유지하여 그에 따른 후폭

풍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이번 선거에서의 '쉬운' 승리와 선거 승리의 공신 중 하나인 빈 라덴 등의 극단 세력들이 그의 급격한 궤도 수정을 끈질기게 가로막으며 신경발작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결국 그의 치명적 실패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힘의 과시와 혁명적 재편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뿌리 깊은 욕망은, 비록 추진 에너지를 잃어 버린 상황에서도 레토릭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은 긴장을 만들어 내고, 이는 또한 예상치 못한 수위의 갈등 상승으로 비화될 수 있다.

결론

현재 미국 사회에 대한 모든 기존의 통찰과 가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과거 미국 사회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제공하였던 영국의 토크빌은 미국이 유럽처럼 관료주의적 거대 국가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태평양을 통한 외부와의 격리라는 은총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긴밀하게 결합되고 급속하게 상호의존하는 지구화라는 현실에서 미국은 더 이상 외부가 아니다. 반면에 9·11 테러는 미국 본토의 안보와 해외에서의 개입주의를 통한 민주화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즉 이슬람 지역의 한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반미적 교과서의 내용이 바로 보스턴에서의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그것이다. 미국 바깥의 국가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편집증적 위기감은 바로 부시 2기가 결코 쉽게 과거의 편안했던 시절의 전통적 현실주의로 돌아가기 어려움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미국 사회의 혼란과 급격한 변모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였기에 『제국』이라는 저작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네그리라는 지성은 미국의 자본주의적, 정치적 이익이 필연적으로 보다 더 다자주의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지배양식을 선호하기에, 부시 정권이라는 일탈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후쿠야마, 아이켄베리 등의 많은 세계

적 석학들이 너무 성급하게 네오콘의 종말을 점친 바 있다.¹⁷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부시 가문의 오랜 숙원인 재선에 '여유 있게' 성공하고 여전히 네오콘들은 요직을 차지하며 이러한 결정론적 예단을 빗나가게 하고 있다.

이렇듯 상식을 깨고 이례적으로 등장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은 많은 석학들에게도 혼란과 당혹감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부시 정권의 노선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면 아직은 성급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집권 2기가 제국의 핵으로서 세계 헤게모니를 행사해 온 미국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군사주의, 일방주의 노선이 미국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크게 주목되어 오지 못한 것은 이러한 대외노선이 또한 국내적으로도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점이다. 현실주의자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네오콘들의 노선을 결국 깨진 옹기만을 소유한 옹기장이의 어리석음에 비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깨진 옹기를 소유하는 과정에서의 공화국의 점진적 타락이다. 다시 말해 강경 보수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가운데 정권은 대량살상무기 등 너무나 많은 거짓말에 의존해야 했다. 그리고 현재 부시 행정부는 선거기간 동안 이에 문제제기를 한 CIA 등을 당파적 입맛에 맞게 숙정 조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미 과거의 애국법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 사회는 안보국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냉전 시절 미국의 위대한 외교안보 전략가이며 보수주의자인 조지 케넌은,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적은 역설적이게도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민주적 활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예지력을 가지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그가 무덤에서 깨어난다면 그토록 위기의식이 팽팽하였던 냉전 시절에서조차도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기

17 Gershman, John, "Weaving Constraints on an Easy Empire", *Foreign Policy In Focus*, 2004. 11. 3.

본적으로 활력은 잃지 않았던 미국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활력을 잃고 안보 국가로서서히 전략해 가는 역설에 충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최근 개봉한 영화인 나비효과는 현재 미국인들의 심리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것 같다. 이 영화는 과거에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한 젊은이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사소한 사건들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노력은 정신적 외상을 고치기는커녕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변의 관계를 더욱 더 끔찍하게 만들고 만다. 어쩌면 이 영화는 마치 과거 디어헌터라는 영화가 베트남전의 악몽을 반영했듯이 현재 이라크전 등의 수렁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미국 젊은이들의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화는 결국 과거로 돌아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유발하는 집안과의 어린 시절 관계 자체를 끊어버림으로써 외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행복한 결론을 맺고 있다. 하지만 영화의 지극히 편안한 해결방식과 달리 9·11 이나 이라크 침공 등의 외부의 현실은 이미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의 누적이 기반을 둔다. 나비효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는 나비의 조그만 날갯짓이 이후 커다란 경로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과연 미국인들이 영화에서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안병진 nsfsr@hotmail.com | 서울대 정치학 석사,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박사(미국 정치 전공),
현 창원대 국제관계 교수, New School teaching fellow,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노무현과 콜린턴의 탄핵 정
치학』, 『9·11 테러와 미국의 외교노선』 등이 있다.